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역외

BOOK STORE

불광출판사

정신과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파욱 수행에서 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불교 수행을 정신치료에 꾸준히 접목시켜온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가 본인의 체험을 사이사이 소개하여 정신

과 의사 입장에서 깨달은 불교 수행의 정신치료적 의미를 짚어간다.

부처님의 부자수업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가 불교학을 섭렵해 완성한 행복의 경제학. 불교의 중도와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해, 시장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불교 자본주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조감 트롱파가 서양에 불교 명상수행을 소개하고 만든 수행 프로그램인 삼발라 수행을 다루고 있다. 삼발라 수행은 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 특히 혼자서 마음 수행의 길을 가는 여정 내내 일어나는 두려움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문의 02)420-3200

비움과 소통

아미타불 48대원 (무량수경과 정법개술)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을 담은 이 책은 『무량수경』의 아미타불 48대원에 대한 해설, 보경 서길수박사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아미타경』, 염불수행 법을 개술한 대

만 방류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로 이뤄져 있다.

생사해탈의 오직 한길

역대 고승과 선사들의 가사체 왕생법문곡과 염불법문을 수록해 참선,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방편을 닦는 불자들도 염불의 깊은 뜻을 터득해 이생에 윤회를 벗어나 불퇴전지(不退轉地)에 오르는 기연을 만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선문염송요론(제1, 2, 3권)

제1권에는 30가지, 제2권에는 41가지, 제3권에는 38가지의 선문답이 각각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거사가 강론을 통해 생활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이 우리 자신을 둘러보게 하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18년간의 스테디셀러 개정판.

■문의 02)2632-8739

열림원

암자로 가는 길 1, 2

전국의 암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요한 선의 진경을 소개하고 고승의 숨결을 전하는 암자기행문의 결정판. 저자거리의 어지러움과 수선스러움을 놓고 상처와 아픔을 위안받는 안심의 여정을 그려낸 〈암자로 가는 길〉은 1, 2권과 곧 출간될 세 번째 책으로 계속 이어진

다. 이 땅의 수행처들을 순례하면서 명상적 산문을 집필해 온 작가 정찬주의 대표 에세이.

무소유

법정스님이 태어나 출가해서 수행하며 입적하기까지의 삶을 소설화한 정찬주 장편소설. 탐욕과 무지의 세속을 벗어나 무아와 무소유의 삶을 이루는 수행의 여정과 법정스님의 따스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문의 031)955-0700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사로잡힐 때 어디로 여행을 떠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인도로 떠난 시인의 경험담. 시인의 눈과 마음으로 다가간 세상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18년간의 스테디셀러 개정판.

클리어마인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존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젊은 날의 깨달음

이 책은 헤민 스님이 계를 받고 난 후 지난 10년 동안 하버드, 프린스턴과 중국, 일본, 헝가리에서 대학교정에서의 삶을 소재로 쓴 에세

이들의 모음집이다.

천년사찰 천년숲길

“천년사찰 천년숲길”은 20년 불교 전문가가 풀어내는 걷기명상 에세이집이다. 현재 불교신문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처음 불교에 입문한 이후로 줄곧 사찰을 다니면서 걸었던 숲길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고 있다.

■문의 02)2198-5151

은주사

선으로 풀어진 천수경

중생들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음신앙의 결정체인 천수경. 이 책은 믿음신앙, 타력신앙의 대표격인 천수경을, 성품을 바로 보아 문오견성한다는 선의 안목으로 융합하여 풀어진 독특한 해설서로, 천수경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줄

것이다.

불보살 영험 이야기

간절한 기도도 불보살님의 가피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로지 간절한 믿음과 신심 하나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뜻하는 바를 이룬 한국, 중국, 일본 중생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모아 엮었다.

■문의 02)926-8361

어린이 반야심경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현직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편찬 반야심경 해설서로, 최대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하였다. 또한 중간중간 예쁜 삽화들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반야심경을 쉽게 이해하고 자 하는 어린이들이 보기에 손색이 없다.

대도대한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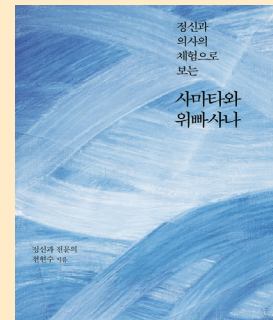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환웅·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 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국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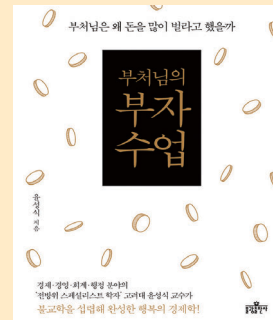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 063)643-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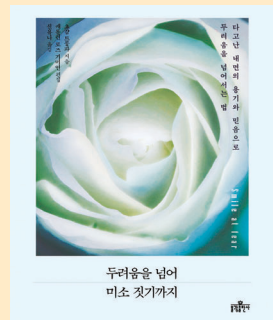
정신과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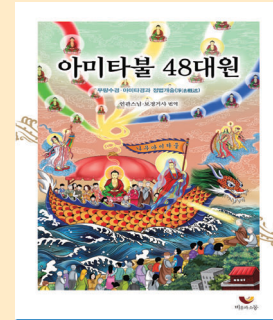
부처님의 부자수업

윤성식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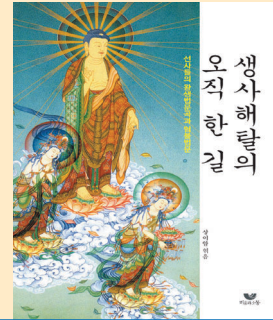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조감 트롱파 | 불광출판사



아미타불 48대원(무량수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보경 서사 번역 | 비움과 소통



생사해탈의 오직 한길

상이암 엮음 | 비움과 소통



선문염송요론(제1, 2, 3권)

백봉거사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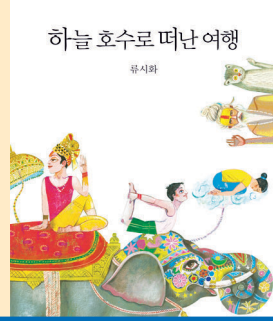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 열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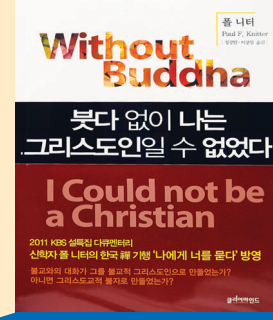
무소유

정찬주 | 열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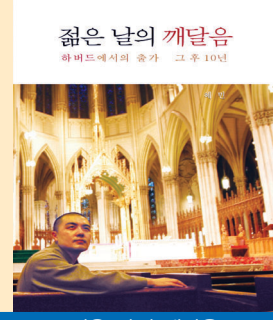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류시화 | 열림원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폴 니터 | 클리어마인드



젊은 날의 깨달음

헤민 | 클리어마인드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 클리어마인드



선으로 풀어진 천수경

진원 | 은주사



불보살 영험 이야기

이수경 | 은주사



어린이 반야심경

민병직 | 은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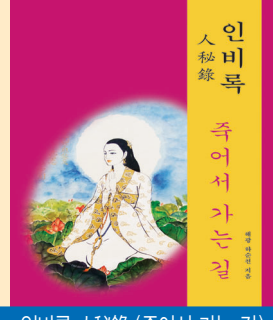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대광 엘리스 | 대도대한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환웅·단군 이야기)

대광 엘리스 | 대도대한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 대도대한



대원성 보살의 피안으로 가는 70년 신행이야기

바라밀 일기

대원성 저음 / 권 17,000원

인연, 한 송이 연꽃이여라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아니 우리가 되었네
우리가 내 안에 있어 더 큰 내가 되었어라.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행을 실천한 모범 불자

우리 대원성 보살님은 비록 속세에 살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불심 속에서 자라났고 70을 넘도록 불심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도 아니하고, 불행(佛行)이 아니면 행동하지 아니 했으며, 불심이 아니면 가슴과 머릿속에 넣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모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 헤민스님 (은혜사 조실)



한 방울 물이 바다가 된 회향의 길

많은 불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때 삶과 수행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그러한 속에서 스승들의 가르침과 현실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살아온 길이 대원성 보살님의 바라밀 일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에 바라밀을 향한 그 신심과 원력은 불자들의 귀감이라고 할만 합니다.

- 혜국스님 (석종사 선원장)